

<번역 논문>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¹⁾

요우빈(游斌) 저*
구향화, 이환진 번역**

근대 중서문화교류사에 있어서 기독교 경전인 성경 번역은 중요한 부분이다. 19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어 성경 번역본은 계속 나왔고, 근대 번역 역사상 번역본이 제일 많으며 이에 대해 무척 광범위한 토론을 해왔기에 성경 번역은 또한 영향력이 제일 큰 문화적 사건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한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을 번역본의 이름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마쉬만역』(Marshman's Version)과 『모리슨역』(Morrison's Version)이 그것이다. 그러나 매 번역본마다 중국인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실제 번역에서 중국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의 근대사에 유명한 개혁가 왕타오(王韬)는 이 중의 한 명이다.

왕타오의 원래 이름은 리빈(利賓)이고 자(字)는 란칭(蘭卿)으로 1828년에 태어나 1897년에 세상을 떠났다. 젊었을 때에는 중국에 온 선교사 미더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麥都思, 1796-1857)를 도와 선교를 했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가서 옥스퍼드 대학의 첫 중국학 교수가 된 제임스 렉(James Legge, 理雅各)을 도와 중국 고전을 번역했다. 그는 중국과 서양을 두루 공부했으며, “눈을 떠서 세계를 보라”(開眼看世界)라는 당시의 구호에 잘 어울리는 중국의 첫 근대 지식인이다. 왕타오는 리산란(李善蘭), 장둔푸(蔣郭夏) 등 번역가와 좋은 친구 사이였고, 덩르창(丁日昌), 성원화이(盛宣懷)와 같은 양무파(洋務派)와 가깝게 지냈으며 뿐만 아니라 순종산(孫中山)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홍콩에서 「순환일보」

*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중국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 철학 및 종교학과 박사생 지도교수, youbin99@sina.com.

** 구향화(具香花), 중국 진황도(秦皇島) 동북대학(東北大學) 졸업, hyanghua.ju93@gmail.com; 이환진,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peninim@hotmail.com.

1) 游斌, “王韬, 中文圣经翻译及其解释学策略”, 「圣经文学研究」第一辑(2007), 348-368.

(循环日报)를 담당하여 “중국의 신문 제1인자”라고 불리며, 유신 변법을 고취했다. 지금껏 왕타오가 서양 문화를 번역하고 소개한 일과 그가 중국의 사상 혁명에 끼친 연구는 많이 있다.²⁾ 그러나 사람들은 왕타오가 했던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 바로 그의 성경 번역을 말한다. 근래 중국과 외국 학자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요하고 새로운 왕타오의 신분, 곧 성경 번역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왕타오의 성경 번역은 여러 사회 문화 상황과 함께 기독교가 근대 중국에 끼친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서방의 문화 교류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1. 성경 번역과 그 문화적 의미

기독교는 “책의 종교”(book religion)이다. 기본적으로 말해 기독교가 전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은 각 민족이 성경을 언어와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한 고전뿐만 아니라 유구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성숙한 술어체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 문화가 성경과 마주칠 때,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곧 어떤 문체로 성경의 어휘와 사상을 나타내야 하는지가 성경 번역자로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위의 문제에 답을 한다면, 우선 “신”(信)과 “달”(達)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제일 원칙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이기는 하지만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같은 민족 언어를 토대로 하여 일정한 시공간 내의 인간의 종교 경험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술어 체계, 전통, 상징, 문법 습관 등은 중국어 및 중국 문화와 큰 차이가 있다. 성경의 신앙을 본디 문화 전통에서 빼내어 중국어라는 언어 속에 담자면 신앙과 문화의 긴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깊은 신념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성경 번역 원칙을 정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번역 성경은 중국 문화에 충격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번역의 제1원칙으로 “신”(信)을³⁾

2)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왕타오의 의의를 논한 책으로는 Paul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가 있다. 이 책의 중국어 번역으로는 柯文, 雷頤, 『传统与现代性之间: 王韬与晚清的改革』, 羅檢秋 译 (南京: 江苏人民出版社, 1994)가 있다. 또한 林啓彦, 黄文江, 主编, 『王韬与近代世界』, 香港: 香港教育图书公司, 2000을 보라.

3) [역자주] 번역투의 거친 표현으로 번역하더라도 원문에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문에 반영되는 것을 중시하는 번역 태도를 말한다.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달”(達)과 “아”(雅)를⁴⁾ 번역의 제1원칙으로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사람들은 원문(Original language)을 중시하고, 뒷사람들은 번역문(Receptor Language)을 중시한다. 제1세대 성경 번역자 모리슨(R. Morrison)과 밀른(W. Milne)은 원문을 중시했다. 예를 들면, 모리슨은 “성경을 풀어서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번역문이 유려하지 않더라도 원문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⁵⁾ 심지어 불변화사(虛辭, particle) 하나까지라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른 또한 “외국인은 중국인 학자처럼 유려하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⁶⁾ 이러한 경향이 있는 번역자의 관점에서 보면, 역자의 목적은 성경을 중국 사람이 쓴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작가가 자기의 스타일로 오래된 습관과 풍습을 기록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제2세대 성경 번역자 미드허스트와 귀츨라프(K. Gutzlaff)는 두 번째 번역 경향을 강조한다. 미드허스트는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문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때로 요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문은 간결하면서 분명하고 간단하면서도 명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단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휘나 구절에 매인 번역보다는 간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대구를 이루는 번역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번역해야 한다고 했다.⁸⁾

두 번째로 큰 논쟁은 성경 역문의 통속 문체(俗)와 고급 문체(雅)의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어느 수준의 중국인들을 독자와 청중으로 삼아 성경을 번역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다. 개신교회가 중국에 들어올 때, 청나라 정부는 중국 사람들이

-
- 4) [역자주] 수용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번역문의 유창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번역 태도를 말한다.
- 5) 밀른이 편집인이었던 *The Indo-Chinese Gleaner* 10 (1819), 210-212에서 Amicus라는 필명으로 성경 번역의 문장에 대하여 쓴 글을 언급하면서 Patrick Hanan은 이 글이 모리슨이 쓴 글인 듯하다고 추측한다. “Chinese Christian Literature: The Writing Process”, Patrick Hanan ed., *Treasures of the Yenching: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Cambridge: Harvard Yenching Library, 2003)의 각주 18을 참조하라.
- 6) 밀른이 Servus라는 필명으로 *The Indo-Chinese Gleaner* 18 (1821), 207-214에 “On the Style of Christian Publications, Intended for the Heathe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 속에 들어 있는 말이다.
- 7) 모리슨이 편집한 *Memoirs of the Life and Labours of Robert Morrison* (London: Longmans, 1839), vol. 2, 71-72에 수록되어 있는 Samuel Kidd, “Critical Notices of Dr. Morrison’s Literary Labours”를 참조하라.
- 8) Patrick Hanan, “The Bible as Chinese Literature: Medhurst, Wang Tao, and the Delegates’ Vers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3, no. 1 (2003), 222.

외국인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하여 오구통상(五口通商) 이전까지 외국 선교사들은 사회 하층민들하고만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성경 역본이 입말(口語)에 가까워 그 문장이 통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경조약’을 조인한 후, 선교사들은 문화적 수준이 높은 인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들 중국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 성경을 번역할 때 문장의 품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1850년대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직역으로 할 것인가 풀이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 켈벗슨(M. Culbertson)과 브리지만(E. Bridgman)을 위시하여 직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다.⁹⁾ 그러나 미드허스트트는 풀이역을 주장했다. “우리는 학자풍의 스타일(scholar-like style)에 힘을 쏟는다. 이 문체는 중국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 뿐더러 글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문체이다”라고 그는 말했다.¹⁰⁾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 번역은 고립된 문화 현상이 아니고 근대 중국과 서방이 나누는 문화적 교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사회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독교가 중국 문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또 기독교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등과 같은 심도 깊은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왕타오가 번역에 참여했던 중국어 성경 『대표본』의 문화적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2. 『대표본』(Delegates' version)의 유래

앞서 언급한 대로 근대 중국어 성경 번역 과정을 보면 중국인 학자들이 어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문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문장을 고치는 등 실제로 주요 번역자로 역할을 했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번역 프로젝트를 이끌었기 때문에 번역 성경의 이름도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라 붙었다. 그러므로 서양인이 주도한 성경 번역 팀 내에서 선교사가 확정한 원칙에 따라, 곧 어느 정도 중국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개방 정도는 어떠했는지에 따

9) E. Bridgman, *Papers, and Correspondence*, 1851년 5월 22일, *South China Mission*, ABCFM Archives, 16.3.8, Houghton Library, Harvard University.

10) 미드허스트트가 런던선교회에 보낸 편지 Council for World Mission Archives, Central Asia, Incoming Letters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Patrick Hanan, “The Bible as Chinese Literature”, 222에서 거듭 인용한다.

라 중국인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왕타오가 번역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스승이었던 선교사 미드허스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드허스트는 중국에 온 제2세대 선교사에 속한다. 그러나 미드허스트는 19세기 20년대 말 동남아에서 선교하면서 『모리슨역』을 비판하였다. 그는 『모리슨역』이 너무 서양적이고 표현이 거칠다고 했다. 이를 통하여 미드허스트가 처음부터 모리슨의 직역 전통과는 다른 성경 번역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35년부터 미드허스트는 중국 광저우(廣州)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중국 문화를 전면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1838년에는 『중국: 나라와 전경』이라는 책을 출판했다.¹¹⁾ 미드허스트의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를 말하자면, 그는 기독교가 중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음을 중국 전통 문화 안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드허스트는 선교사 중에서 처음으로 <삼자경>(三字經)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다.¹²⁾ 그는 또한 『논어』의 대화체로 기독교의 교의와 도덕과 가르침을 강의하기도 했다.

브리지만과 켈벗슨이 일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미드허스트는 중국의 지식인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 미드허스트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사대부들에게 교의를 전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특히 쉬광치(徐光啓)가 마테오 리치에게 도움을 준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쉬광치가 한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였기에 마테오 리치의 번역을 우아하고 정결하게 정리하여 상층 사대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¹³⁾ 후에 미드허스트는 상해에서 런던선교회 출판사(LMS Press, 墨海書館)를 담당하여 중국 지식인들에게 서방 종교, 역사, 정치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리산란(李善蘭), 장둔푸(蔣敦復) 등 지식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1845년, 미드허스트는 조약의 제한을 무시하고, 중국 내지에 있는 강서(江西) 아오원(婺源)까지 가서 당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유학자들을 만나고, 중국 종교와 기독교 문제를 토론하였다.¹⁴⁾

11) Walter Medhurst,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With Especial Reference to the Spread of the Gospel: Containing Allusions to the Antiquity, Extent, Population, Civilization,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Chinese* (London: J. Snow, 1838)를 보라.

12) 하버드 옌칭 도서관(the Harvard Yenching Library)에 <三字經>, 香港: 英華書院藏版, 道光二十三年과 같은 판본이 있다. 물론 출판 연대를 알 수 없는 것도 더 있다.

13) Walter Medhurst,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227.

14) 그의 여정에 대해서는 Walter Medhurst, *A Glance at the Interior of China: Obtained during a Journey through the Silk and Green Tea Districts Taken in 1845* (Shanghai: Mission Press, 1849)에서 읽어볼 수 있다.

1834년 미드허스트는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복음 조화』(福音調和)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4복음서를 바탕으로 예수의 일생을 기술한 것이다. 1838년에 미드허스트는 귀츨라프와 함께 『모리슨역』을 고쳐 『신유조서』(新遺詔書)와 『구유조서』(舊遺詔書)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미드허스트는 이러한 중국어 성경의 개정(revision)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번역할 것(retranslation)을 주장한다. 다시 번역한 결과가 바로 미드허스트의 주관으로 1847년에 시작하여 1854년에 완성한 『대표본』(Delegates' version)이다.¹⁵⁾

『대표본』이라는 이름은 여러 지역의 선교회 대표들이 힘을 합쳐 펴낸 성경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눠 각각 다른 곳에서 번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대표(delegate)를 선발하여, 상해에서 모여 함께 토론하고 최종 번역문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대표위원회는 번역 원칙 때문에 두 파로 나뉘어졌다. 미국 선교사 브리지만과 분(W. Boone)은 직역(直譯)을 주장했고,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 미드허스트, 스트로낙(J. Stronach)과 밀른은 중국의 표현 방식을 중시하면서 문장의 우아함과 간결성을 강조했다. 런던선교회의 성경 번역 원칙이 위원회 내에서 우세하였다. 브리지만과 분의 의견은 중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대표본』의 <신약>은 미드허스트가 주도했다. <구약>을 번역할 때 결국 두 파가 결별해서 브리지만과 켈벗슨은 <구약> 번역을 다시 시작했다.

『대표본』은 두 개의 기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드허스트의 현지 적응적 신학 이해와 번역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하느님의 호칭으로 『대표본』은 미드허스트가 주장한 “상제”(上帝)를 채택했다. 미드허스트는 이 호칭을 선택해야 중국 문화 전통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상제”(上帝)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 고대 문헌에 “상제”(上帝)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며 또한 하느님 숭배는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이기에 고대 중국의 “상제”(上帝)라는 호칭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이다.¹⁶⁾ 둘째, 『대표본』의 문체 또한 미드허스

15) [역자주] 저자는 이 성경의 이름을 『위관역본』(委办译本)이라고 부른다.

16) 미드허스트가 “상제”(上帝)를 쓰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Samuel Kidd, *Critical Notices of Dr. Morrison's Literary Labours*, vol. 2. 31-41을 참조하라. 번역 성경의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중국어 용어에 대해서는 명말 청초 시기 천주교 선교사들 사이의 논쟁에 대한 글 游斌, “一个上帝, 多个名字: 旧约神名与明末清初时期上帝译名之争之间的跨文本阅读”, 『国际华裔圣经学术会议论文集』, 香港, 2004를 참조하라. 브리지만을 위시한 학자들은, 중국인들은 예부터 성경의 하느님과 같은 개념이 없었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상제”는 성경의 하느님과 다르다고 하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편적인 “신”(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의 번역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나온 결과이다. 곧 번역문에 중국어의 특징을 살려 알맞고 정확한 표준어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번역 팀이 번역을 할 때 박식한 중국인 학자의 의견에 따라 번역문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대표본』의 번역을 주도했던 미드허스트는 “우리의 번역(곧 『대표본』)을 읽는 사람마다 이 번역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표준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따라서 훌륭한 중국 문학작품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¹⁷⁾ 어쨌든, 『대표본』은 기독교 경전의 번역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수한 중국 문학작품이다. 이런 원칙을 보면 왕타오가 『대표본』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3. 『대표본』의 주요한 번역자 중 한 사람 왕타오

왕타오는 1828년 11월 10일 쑤저우(蘇州) 부리(甫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왕창궈이(王昌桂)는 그곳 서당의 선생이었다. 1845년 그는 수재(秀才)에 붙었지만 1846년 남경(南京)에서 응시한 시험에는 떨어졌다. 1847년 왕타오의 아버지는 상해로 갔다. 그때는 『대표본』을 상해에서 집중적으로 번역하던 시기이었다. 그래서 왕타오의 아버지가 성경 번역을 함께 하자라는 요청을 받아 갔던 듯하다. 왕창궈이는 1847년부터 1849년까지 번역위원회가 신약을 번역할 때 복음서에서 <로마서>까지 함께 번역했다. 미드허스트는 왕창궈이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박식한 학자이다. 중국 고전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살아 있는 도서관’이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유가의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죽는 한이 있어도 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떠난 것이 슬펐다. 그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¹⁸⁾

왕창궈이는 1849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미드허스트는 다른 사

17) W. Medhurst, *Reply to Dr. Boone's Vindication of Comments on the Translation of Ephesians I* (Shanghai: London Mission Press, 1852), 21.

18) Report to LMS, CWM archives, Central China, Incoming letters, 1854년 10월 11일. Patrick Hanan, “The Bible as Chinese Literature”, 224-225에서 거듭 인용한다.

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왕타오는 1848년 초 상해에 아버지를 뵈러 왔었기 때문에 미드허스트와 그의 번역 팀 내에 있던 중국인 학자들과 교제가 있었다. 그 중국인 학자들의 추천으로 미드허스트는 1849년에 왕타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상해에 와서 번역을 돕고 런던선교회 출판사의 편집 일을 하도록 초청했다. 그 후 1850년 신약의 번역이 완성됐고, 1853년에는 구약도 완성됐다. 1856년에는 『대표본』을 원본으로 번역한 최초의 관화역(官話譯) 성경이¹⁹⁾ 완성되었다.²⁰⁾ 왕타오는 미드허스트의 성경 번역과 선교 사업을 잘 도와 일했다. 미드허스트는 왕타오를 이렇게 평가했다.

“왕타오는 금방 성인이 됐다. 그는 재능이 출중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학문 면에서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배운 것을 활용하는 능력은 그의 아버지보다 뛰어났다. 그의 문체는 우아하고 관점 또한 노련하다. 그는 이 작업에 깊이 몰입하여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선배 중국인 학자들의 존경도 받는다. 왕타오는 착실하게 일을 하고 번역에 관한 일에도 진솔하게 준비한다. 동료가 문장을 고친 뒤에 보면 그의 번역문을 다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왕타오는 신약과 구약의 교의를 모두 연수했다. 『대표본』의 율기와 잠언 속에 들어 있는 아름답고 간결한 표현과 유려한 문장은 모두 왕타오 덕분이다.”²¹⁾

왕타오는 미드허스트에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 그래서 1858년 미드허스트가 세상을 뜨자 왕타오는 매우 슬퍼했다. 미드허스트는 진정으로 친밀한 서방인이라고 했다.²²⁾

『대표본』의 번역위원회는 번역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중국인 학자의 의

19) [역자주] 이 최초의 관화역 성경을 『남경관화역』이라고 부르며 미드허스트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화역이란 당시의 구어체(口語體) 성경을 말한다. 참고로 『북경관화역』 성경의 신약은 1870년에, 구약은 1875년에 나온다. 북경관화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를 가리킨다.

20) 미드허스트와 스트로낙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도와준 중국인 학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왕타오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Thor Strandenaes, “Anonymous Bible Translators: Native Literati and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Chinese, 1807-1907”, Stephen Batalden, et al, *Sowing the Word: The Cultural Impac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04-2004* (Sheffield: Phoenix, 2006)와 游斌, “被遗忘的译者: 中国士人与中文圣经翻译”, 『道风: 基督教文化评论』, 2007, 출판 예정을 참조하라.

21) 1854년 10월 11일에 구약 번역을 끝내고 미드허스트가 런던선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Patrick Hanan, “Chinese Christian Literature: The Writing Process”, 275에서 거듭 인용한다.

22) 方行, 汤志钧 整理, 『王韬日记』, 中华书局, 1987, 16; 张海林, 『王韬评传』, 南京大学出版社, 1993, 66을 참조하라.

견을 존중하고 또 충분히 받아들였다. 번역위원회 위원이었던 밀른의 평가를 읽어보자.

“번역위원회는 날마다 회의를 했다.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작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위원회의 번역 작업 절차는 이렇다.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고, 한자 한자 토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번역 팀 중의 몇 번역자는 중국인 선생과 함께 있다. 그 중 3명은 우리와 함께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도움을 주었다.”²³⁾

중국인 학자들이 깊이 참여한 것이 『대표본』이 성공을 거둔 주요 원인이자다. 통계에 의하면 1859년까지 『대표본』은 11쇄나 재판을 출판했고, 20세기 20년대까지도 『대표본』을 읽는 사람이 있었다.²⁴⁾

왕타오는 중국인 학자 중에서도 걸출한 인물이었다. 앞서 미드허스트의 칭찬 말고도 『대표본』의 문체와 『대표본』이 번역된 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왕타오가 『대표본』의 주요 번역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런던선교회의 윌리엄 뮌헤드(William Muirhead)는 1890년에 “『대표본』의 문체는 확실히 이 젊은 중국인 학자의 문체이다”라고 말했다.²⁵⁾ 가니어(A. J. Garnier)는 1934년에 “왕씨 성을 가진 학자(왕타오를 가리킴)는 학문이 뛰어난 학자이며, 번역자 중의 한 명이다. 그들이 번역한 성경의 문장은 어느 각도에서 보든 다 옛날 번역본보다 훌륭하다”고 말했다.²⁶⁾ 동시에 『대표본』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왕타오가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1908년 『화합본』의 문리관 책임자였던 셰필드(Devello Zelotos Sheffield)는 이렇게 비판했다. “그들은 중국인 학자들(왕타오를 포함하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나머지 맘대로 성경 구절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하기도 하고 다시 조합하기도 하며 심지어 바꾸게 까지 하였다.”²⁷⁾ 이렇게 왕타오가 『대표본』의 주요 번역자 중 한 명이라는

23) William Milne, *Life in China*, 2nd ed. (London: G. Routledge, 1858). 또한 Alexander Wylie, “Bible in China”, *Chinese Researches* (Shanghai, 1897), 103-104를 보라.

24)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New York: Macmillan, 1929), 263, 266을 참조하라.

25) William Muirhead, “Historical Summary of the Different Versions”,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 Held at Shanghai, May 7-20, 1890*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0), 35를 참조하라.

26) A. Garnier, *Chinese Versions of the Bible* (Shanghai: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4), 29를 보라.

27) 셰필드(D. Z. Sheffield)가 1908년 1월 12일 미국해외선교이사회(ABCFM, 美部會)에 보낸 편지 North China Mission, 16.3.12, 1900-1909, ABCFM Archives를 보라.

것은 분명하다.

4. 왕타오의 기독교 이해와 수용

왕타오가 당시 중국에 온 유명한 선교사 미드허스트, 뤼어헤드(W. Muirhead), 제임스 렉(James Legge) 등과 친밀한 사이였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기독교와 맺은 관계는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²⁸⁾ 왕타오는 1854년 8월 26일 세례를 받고 입교했으며,²⁹⁾ 1854년 그의 일기를 보면 왕타오가 교회 활동에 많이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글이나 책 속에서 그는 교회와의 관계를 숨기고, 말년에 기독교를 비판하였으며 유학이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³⁰⁾ 왕타오가 분명 “좋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지식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더욱이 선교사를 도와 성경을 번역한 것은 보수적인 학자가 볼 때 “변절”했다는 누명을 쓰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왕타오는 런던선교회 출판사의 친구 궁싸오궁(龔孝拱), 선류궈이(沈毓桂), 차이얼강(蔡尔康) 등에게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³¹⁾ 왕타오의 일기를 보면 그는 1859년 3월 브리지만의 요청으로 당시 동성파(桐城派)의³²⁾ 중요한 인물이었던 가까운 친구 관쓰푸(管嗣夏)에게 번역 작업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번역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 책을 그냥 번역하고 또 문장을 다듬는 것뿐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은 나와는 상

28) Paul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19.

29) 일설에는 그가 8월 22일에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办精, “王韬的基督教洗礼”, 『王韬与近代世界』, 435-436.

30) 당시 장둔푸(蔣敦复)와 리산란(李善蘭)과 같은 기독교인 중국인 학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사회심리적 원인으로는 중국 사대부들이 중국과 오랑캐는 구분해야 한다(華夷相分)고 생각한 것과 그들의 유아독존적인 문화적 심리 그리고 주변의 보수적 인물들이 “자신을 팔아 오랑캐를 섬긴다”(賣身事夷)고 그들을 공격한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张海林, 『王韬评传』, 24-67을 참조하라.

31) 李焯昌, 李天纲, “关于严复翻译的 <马可福音>”, 『中华文史论丛』 第64辑(上海古籍出版社, 2000, 12)을 참조하라. 20세기 초까지도 보수적인 지식인들 또한 기독교에 대해, 심지어 이 번역 성경에 대해서조차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32) [역자주] 동성파(桐城派)는 청나라 때 일어난 고문가(古文家)의 한 파로,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修)의 문장을 표준으로 삼고 정호(程顥)와 주희(朱熹) 등의 철학을 기반으로 했던 학자들이다(민증서림, 『漢韓大字典』, 1006).

관없다”고 했다. 이렇게 그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번역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쓰푸(管嗣夏)는 그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우리는 유가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가의 학문을 하지 않고 이단을 막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치에 어긋나는 책을 번역하겠는가?”라고 했다.³³⁾

왕타오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기독교 사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1854년 10월 11일 미드허스트가 런던선교회에 편지를 써서 번역자 왕타오의 세례를 신청했다는 점이다.³⁴⁾ 영어로 번역되어 표준 중국어의 맛이 없긴 하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왕타오가 기독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타오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이해를 분석해 보면 왕타오가 『대표본』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있다. 왕타오의 세례 신청서는 그의 신앙고백으로 대략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기독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2. 기독교의 기본 교의에 대한 생각.
3. 기독교 중국화의 이해.

첫 번째 부분에서 왕타오는 성경 번역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접했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이 미래의 심판, 영혼의 구원, 상벌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하셨기에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예수님이 논하신 천당과 지옥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한 것은 철학자들의 논의를 보충한 것이다”고 했다. 또 입교한 사람은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며 나쁜 행실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걸으며 성령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생명과 언행이 바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왕타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왕타오는 기독교의 교의에 대해서 말한다. 우선 하느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하느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했다. 의인(義人)은 “죽은 후 깨달음이 있는 영혼

33) 方行, 汤志钧 整理, 『王韬日记』, 92를 참조하라.

34) Patrick Hanan, “The Bible as Chinese Literature: Medhurst, Wang Tao, and the Delegates’ Version”, 235-239에 이 문헌이 들어 있다. 중국어 원문은 구할 수 없었다. 또한 办精, “王韬的基督教洗礼”, 435-452에 있는 번역문을 참고하라.

(有知之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왜냐하면 오직 제사는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이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하느님의 명을 받든 것이며, 그분의 죽음은 또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천주만대에 죄를 지을까 슬퍼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으며 한없는 그분의 미덕과 무한한 자비는 자연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왕타오의 기독교 이해는 전통적인 중국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덕의 본보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5. 왕타오의 성경 번역 및 그의 해석학 전략

왕타오는 세례 신청서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기독교를 중국화 하느냐 하는 문제로 씌름했다. 이는 그의 성경 번역 원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의 성경 번역 방식 속에 숨어 있는 그의 해석학(Hermeneutics)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시 중국인 학자들에게 기독교와 중국 문화의 관계는 바로 기독교와 유가 문화의 관계이었다. 왕타오는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거절한다. “공자는 중국인들이 오래도록 존경해온 스승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선동하거나 쉽사리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기독교는 공자의 도와 이론상으로 거의 같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공자의 도를 멸시하고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그러나 왕타오는 “모든 종교에는 심원한 상상력(abstruse speculation)과 오묘한 신비(hidden mysteries)가 들어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자의 도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같다고 강요하지 말고 공자의 도를 질책하지도 말라. 각 사람마다 그 도와 그 가르침을 배워 선택한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를 견지하는 듯하다. 기독교 안에서 유가의 전통을 용납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서 그는 브리지만과 켈벗슨이 주장한 “하층노선”(下層路線)의 원칙을 반대하고 상층사회를 통하여 하층이 따라 오기를 주장한다. 왕타오는 “나는 입교인들이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소질도 없고 학문도 없다고들 말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물어 보면 다 긴가민가하고 설명하지 못한다. 주일 예배 때 그냥 사람들을 따라 할 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도 했다. 그래서 왕타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교 방식은 바로 마테오 리치와 쉬광치가 하던 방식으로, “지금 예수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믿는 사람이 많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또한 많아 교의의 전파에 도움이 될 뿐더러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이다. 명말청초(明末清初)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의 학식이 지금 선교사들보다 높아서가 아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재능이 있고 박식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타오는 공자의 한마디를 인용했다. “말이 안 되면, 오래 못 간다.”(言之無文, 行之不遠) 그는 선교를 마치 한 문학 작품처럼 “문장과 질³⁵⁾을 다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리(眞理)와 문장의 아름다움(文采)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 지식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시골의 농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쉬광치를 본받아 기독교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왕타오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접하면서 가졌던 기대이다.

왕타오는 미드허스트처럼 마테오 리치와 쉬광치를 추앙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당시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은 당시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경향이었다. 왕타오의 지인 장둔푸(蔣敦復)는 이렇게 비판했다.

“천주교는 명나라 때 중국에 들어 왔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와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등은 천문과 지리에 능통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저작 『칠극』(七克)³⁶⁾ 등의 책이 말하는 도리는 마음에 들 뿐더러 유가의 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교사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다. 논하는 교의는 황당하고 그들의 식견은 짧다. 중국 글의 뜻도 잘 모르면서 학자들이 고쳐주면 싫어한다. 설교는 들어보면 끊임없는 잔소리라 잠이 올 뿐이다.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 들으면 배를 안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다.”³⁷⁾

35) [역자주] ‘문질(文質)’은 논어 ‘옹야(雍也)’ 편에 나오는 ‘문질彬彬(文質彬彬)’에 사용된 말로, ‘문(文)’은 문장 표현 또는 형식의 측면을, 질(質)은 바탕을 이루는 내용의 측면을 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역자주]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뻬또하, 『칠극(七克) — 그리스도교와 新儒學의 초기 접촉에서 형성된 修養論』, 박유리 역 (서울: 일조각, 1998).

37) 蔣敦復, “似以英國使臣威妥瑪書”, 『嘯古堂詩集』(上海古籍, 1995-1999). 에드킨즈(Joseph Edkins)가 장둔푸(蔣敦復)를 분석하고 마틴(W. A. P. Martin)이 리산란(李善蘭)을 분석한

그의 논점이나 논거나 말투는 모두 왕타오와 비슷하다. 모두 당시 성경 번역문(과 전도용 소책자)의 중국어 표현이 천박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미드허스트와 왕타오가 번역한 성경은 우아하고 유려한 중국어 문체를 우선으로 삼았고 원문에 대한 충실성은 둘째로 쳤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아래 『대표본』의 구체적인 분석에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미드허스트가 말한 것처럼 왕타오가 주로 작업한 본문은 <욥기>와 <잠언>이다. 구약성서 속에서 이 두 권은 “지혜문학”(Wisdom Literature)에 속한다. 지혜문학은 구약의 주요 부분인 “오경”이나 “선지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별로 말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이성적 반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 경험을 말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야훼의 선택과 약속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생활의 논리 법칙을 강조한다. 심지어 히브리 전통의 인본주의, 이성 전통, 도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³⁸⁾ 성경의 다른 책에 비해 유가 학설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대표본』의 위 두 권을 왕타오에게 특별히 맡긴 것을 보면 유학과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언> 1장 1-7절은 <잠언>의 총론이다. 『대표본』은 다음과 같다.

以色列王所羅門，大衛之子也。所著箴言：訓人以智，迪人以理。得明至道，得秉公義。使拙者明徹，少者通達。哲者聞此而增其學，明者聞此而益其慧。玩味箴言之微旨，可悟賢人之隱語。其箴言：寅畏耶和華，是爲智之本；愚魯者流，藐視道學。

문체상으로 보면 이 번역문은 중국어의 표현 습관을 따라 운율을 맞추기 위해 4자 대칭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대구법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표현 습관과 운율을 추구하다보니 원문의 중요한 단어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訓人以智，迪人以理”(지혜로 사람을 훈계하고 도리로 사람을 일깨운다)를 보면, 원문에는 “지혜”(wisdom, 智) 이외에 “교훈”(discipline, 訓誨)이라는 말이 더 있으며, “理”(도리)는 원문에는 사실 “분별 있는 말”(words of discernment, 明辨的言語)로 되어 있다.³⁹⁾ 이어서 나오는 “得明至道，得秉公義”(높은 도를 밝히 알며 공의를 펼

것에 따르면 이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한 요인은 사회적인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ohen, 21을 참조하라.

38) 游斌, “智慧文学: 希伯来圣经中的理性传统”, 『宗教学研究』2002年 第3期 참조.

39) 원문의 뜻과 함께 영어의 주어 용어는 Jewish Publication Society의 히브리어-영어 역본 2000년판을 따랐다.

친다)에서는 이 구절의 핵심적인 어휘인 “공평”(justice, 公平)이나 “정직”(equity, 正直)을 삭제했다. 마지막에 나오는 “道學”이라는 단어에는 송나라 명리학의 느낌이 강렬하다. 하지만 원문에는 “지혜와 교훈”(wisdom and discipline, 智慧与训诲)으로 되어 있어 두 번째 구절과 대구를 이루고 있다. 『대표본』은 “道學”을 “爲智之本”(위지지본)과 대응시키려고 핵심 용어를 살리지 못하고 직역을 포기하면서 또한 앞뒤를 일치시키지도 못했다.

얼마 뒤 『대표본』의 번역 팀은 분열되었다. 브리지만은 미드허스트가 왕타오 등 중국인 학자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였다고 질책하면서 쾰벳슨과 함께 구약을 번역하여 1863년에 따로 출판했다. 문체는 『대표본』보다 못하지만 원문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말할 수 있다.

以色列之王大衛子所羅門之箴言，使人識智慧與訓；明有智者之言。傳承智慧·公義·理鞠·正直之訓。致拙者明徹，年少者獲知識謀略。智者聞之而進學，明者聞之而益謀；致明夫箴言及其解釋，明智者之言及其隱語。畏耶和華之寅畏，乃知識之本，惟愚人藐智慧之訓焉。

이번에는 『대표본』에 나오는 <욥기>의 일부분을 보기로 한다. 제3장에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유명한 노래가 나온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約百詛其生日，曰：我生之辰，不如無此辰；我生之夜，不如無此夜。孰若是日晦冥爲愈，孰若上帝不降以福，勿燭以光。何如幽暗陰翳蔽之，靈黷覆之，日蝕譴之。何如是日之夕，慘淡昏黑，不入年期，不進月數。何如是夕，不誕嬰孩，不聞歡聲。凡能詛日，持咒招鱷者，當以是日爲不吉。何如是日味爽，明星不現，待旦不得，天無曙色。是日，母氏育我，致遭艱苦。毋寧墮胎而死，既不然，誕而身死氣絕。毋曷提攜我，乳哺我。浸假當時無生，我今可宴然安寢。國王議士，當年所築之陵墓，而今安在。元戎巨富，金銀充棟，而今烏有，我欲與之同歸於盡。

위의 『대표본』은 한문으로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성경 원문을 많이 고치고 맘대로 문장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첫 구절이 “我生之辰，不如無此辰；我生之夜，不如無此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我生之夜”가 없고, “남자 태아가 잉태되던 그날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른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히브리어의 특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화합본』은 이 부분을 “说怀了男胎的那也都灭没”(“남자아이를 잉태한 그 밤이 없어졌더라면”)로 번역했다. 그런데 『대표본』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 자

유롭게 낱말을 추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문의 뜻을 바꾸기도 하였다. “國王議士，當年所築之陵墓，而今安在。元戎巨富，金銀充棟，而今烏有”가 그 한 예이다. 운율이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원문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而今安在”와 “而今烏有”는 번역자가 추가한 부분이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빨리 죽고 싶다고 읊이 말한 내용이다. 『대표본』은 원문의 뜻과는 좀 다르게 인생의 부귀영화가 무상하며 생명의 변화에 대하여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대표본』은 구절마다 때로는 원문을 삭제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면서 다시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본』은 읽기 어려운 옛 한자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난한 하층민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다. 몇 십 년 후, 본필드(G. H. Bondfield)가 예푸(嚴夏)에게 부탁하여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했다. 그 번역문 역시 『대표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표본』은 고전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어느 유명한 작품과 견주어 볼 수 있다. 예푸(嚴夏) 또한 번역문에서 어려운 한자와 드문 글자[僻字]를 많이 사용했다. 중국인 학자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 중국의 관원들과 선비들도 모두 좋아했을 것이다. … 이렇듯 그들에게 『대표본』은 외국 서적이라기보다는 중국 문헌이었다.”⁴⁰⁾

왕타오 또한 번역하면서 어려운 한자를 사용한 것은 성경을 대다수의 중국인 학자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타오와 미드허스트 등은 중국 전통 종교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예를 들어 3절에 나오는 “日蝕譴之” 가운데 “譴”(견) 자는 유가의 “天譴說”(천견설)을 따른 번역이다.⁴¹⁾ 그러나 원문의 뜻은 “깜짝 놀라다”(驚嚇)이다. 그래서 『화합본』은 “恐嚇”(“위협하다”)로 번역하였고, 뤼쨌중(呂振中)은 “威嚇”(“으름장 놓다”)로 번역했다. 그리고 “持咒招魘者”의 원문의 뜻은 “우주의 혼돈 괴물을 부추겨 일깨우다”(能將宇宙混沌怪獸激發起來的)이다. 여기서 “持咒”(지주)라는 단어는 번역자가 집어넣어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중국 민간 종교에서 “持咒作法”(지주작법)이라는 술법을 행할 때 쓰는 말이다.

40) 大英圣书公会(BFBS): 『圣书公会目录』. 李焯昌, 李天纲, 『严夏译<马可福音>』에서 거듭 인용.

41) [역자주] 천벌(天罰), 곧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설을 말한다(민중서림, 『漢韓大字典』, 504).

『대표본』과 동시대에 나온 『브리지만-컬벗슨역』은 직역으로 유명한 역본인데, 비교해 보면 번역 방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브리지만-컬벗슨역』은 다음과 같다.

其後，約百啟口，自詛其生日；約百開言曰：“我出世之日，願其亡矣；夜有言云：‘有男子懷焉’，願其亡矣。願此日爲晦冥，願神毋自上而顧之；願光亦勿照之兮；願晦冥與死蔭收之；願雲覆蔽之；願日之暗懼之兮；願此夜爲昏黑所執；願其不欣喜於諸年之日中；亦不入於月之數內兮；視哉，願此夜爲荒，不得有歡欣之聲於其間兮；願詛諸日者詛之；即巧於激巨鱷者，施褻瀆於是夜兮；願其薄暮之星爲晦冥，願其望光而不得；亦不得見味爽之睫兮；緣其不閉生我之胎門，而蔽憂於我目兮。我何不由胎而死，出胎而速絕氣兮；胡爲有膝爲我而先備乎，胡爲有乳以哺我乎！否則，我今臥而安，寢而得靜。與地之列王及議士楷，其曾爲己建荒蕪兮；或偕於有金之牧伯，即以銀曾滿其屋兮。

문체는 『대표본』보다 못하지만 직역으로는 훌륭하다.

6. 결론

『대표본』은 중국 성경 번역 역사상 독특한 사례이다. 왕타오는 중국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은 『대표본』의 문체와 어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왕타오는 『대표본』의 주요 번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타오와 미드허스트가 주도한 『대표본』의 번역은 단순히 성경 번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발전한 독특한 방식의 성경 해석학이다. 성경 번역이라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학을 보여준 실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드허스트는 기독교의 성경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어 작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타오 등 중국인 학자들이 주도하여 주요 용어와 문체와 문장 구조 등을 취사선택하고 심지어 중국어의 관습을 따라 성경구절을 자유롭게 고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중국 문화에 속하게 하여”, 중국 문화를 따라 복음을 이해하고 심지어 중국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변화시킨 해석학적 전략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일부 중국인 학자들의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화가 되어 우아한 중국 문학 작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보면 성경 자체의 특징을 희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수많은 중국 고전 중에 단지 한 권을 추가시켰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한다. “영적으로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성경의 깊은 뜻이 문체에 덮여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영적 경험이 없는 자는 『대표본』의 운율에 속아 그리스도가 공자인 줄 안다.”⁴²⁾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복음과 문화 사이의 차이를 없애 중국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충격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중국 문화의 비판적 대화 상대가 되는 가능성이 소멸되어 중국 근대문화사 속에서 기독교의 지위가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과 중국의 고유 전통 문화가 유익한 긴장을 유지하고 기독교가 중국 문화의 “비판적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하여 성경 번역이라는 성경 해석학은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왕타오, 미드허스트, 대표본, 해석학.

Bible Translation, Wang Tao, W. Medhurst, Delegates' Version, Hermeneutics.

(투고 일자: 2015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23일)

42)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 Held at Shanghai, May 7-20, 1890* (Shanghai: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0), 52.

<Abstract>

Wang Tao, Chinese Bible Translation and His Hermeneutical Strategy

You Bin
(Minzu University of China)

The history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Sino-foreign cultural communication of Modern China. The versions of the different Chinese Bible were usually named after the western missionaries in China, and the Chinese native literati assistants who played very important roles in the translation generally went into obliv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amous reformer, journalist, and writer, Wang Tao,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success of Delegates' Version under his missionary instructor, W. Medhurst. Drawing from a number of first hand materials, the author believes Wang Tao was one of the de facto translators, though himself tried to conceal it because of the heavy social pressure in the late Qing dynasty. Under his assistance, the Delegates' Version could be regarded as "a Chinese literature", being welcomed by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i. Some translation passages are analyzed, with comparison to the original Biblical text and other Chinese translations. Furthermore, its translation was a deep hermeneutics which aimed to contextualize Christianity into Chinese culture.